

2014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Analysis of suicide deaths in Seoul ;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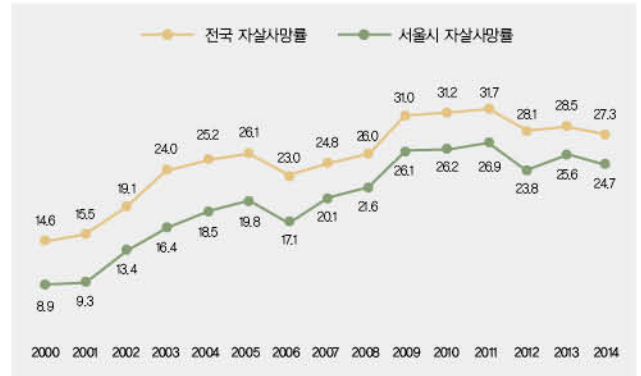
김동욱¹⁾, 이구상¹⁾, 이명수¹⁾
Kim, Dong-Wook, Lee, Gu-Sang, Myeong-Soo

1. 전국과 서울시 자살사망에 대한 비교

1)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 당)

전국과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12년 대비 2013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국과 서울시 모두 감소하였다.

★ 전국/서울시 자살사망률 변화추이 ('00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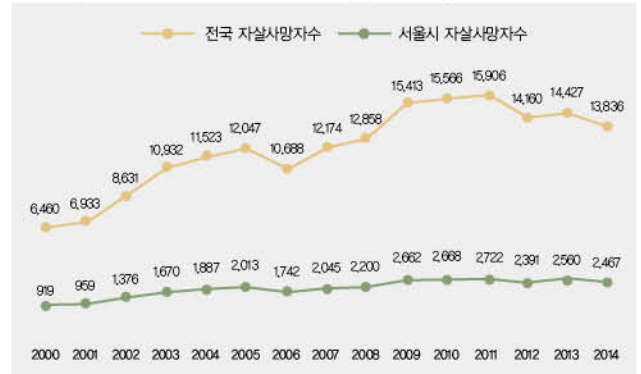


2)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 추이

전국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1만 5천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1만 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2천 5백 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이어지다가 2012년과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고, 2014년에는 2천 4백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전국/서울시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00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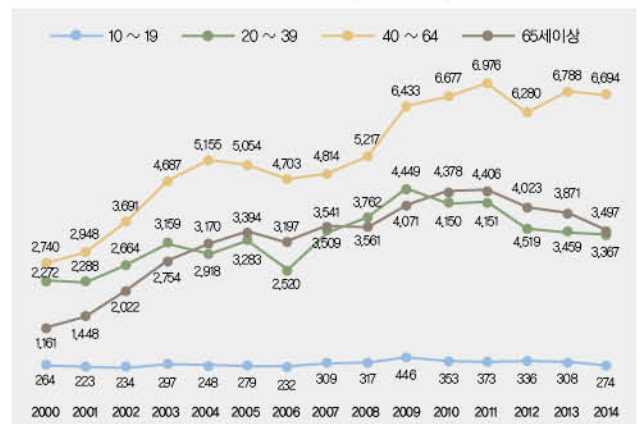


3)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2014년 연령대별 전국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세~19세, 20세~39세, 6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감소를 보였다.

*연령 미상 2명, 5~9세 2명.

★ 전국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00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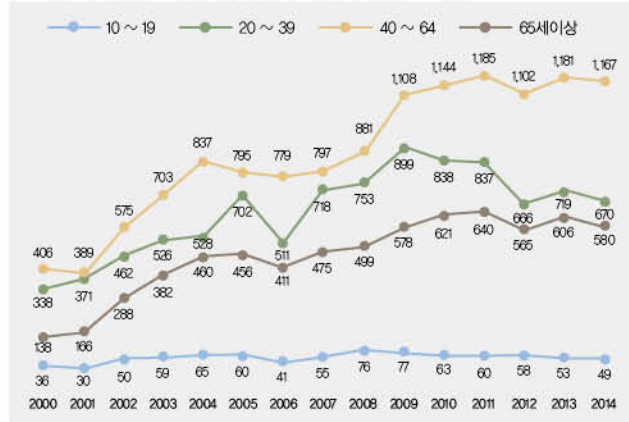
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 서울시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2014년 연령대별 서울시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세~19세, 20세~39세, 6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감소를 보였다.

*연령 미상 1명

★ 서울시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00 ~ '14)



5)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나타났다.

★ 전국/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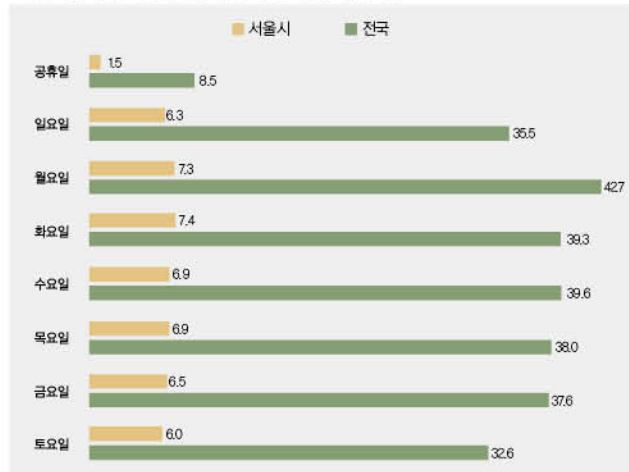


6) 전국, 서울시 요일별 1일 평균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별 평균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8.5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토요일(32.6명)과 일요일(35.5명), 금요일(37.6명), 목요일(38.0명), 화요일(39.3명), 수요일(39.6명), 월요일(42.7명)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별 평균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1.5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토요일(6.0명), 일요일(6.3명), 금요일(6.5명), 목요일(6.9명)과 화요일(6.9명), 월요일(7.3명), 화요일(7.4명)로 나타났다.

★ 전국/서울시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



7) 사망원인별 순위

사망원인별 순위에 있어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자살사망률이 전국과 서울시 모두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원인별 순위

	2011	2012	2013	2014
전국	1 암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심장 질환	2 뇌혈관 질환	2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3 뇌혈관 질환	3 심장 질환	3 뇌혈관 질환
	4 자살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5 폐렴
	6 폐렴	6 폐렴	6 폐렴	6 당뇨병
	7 만성하기도질환	7 만성하기도질환	7 만성하기도질환	7 만성하기도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9 운수 사고	9 운수 사고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질환
서울시	1 암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4 자살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5 폐렴
	6 폐렴	6 폐렴	6 폐렴	6 당뇨병
	7 간 질환	7 간 질환	7 간 질환	7 간 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9 운수 사고	9 운수 사고	9 운수 사고	9 운수 사고
	10 고혈압성질환	10 알츠하이머병	10 알츠하이머병	10 알츠하이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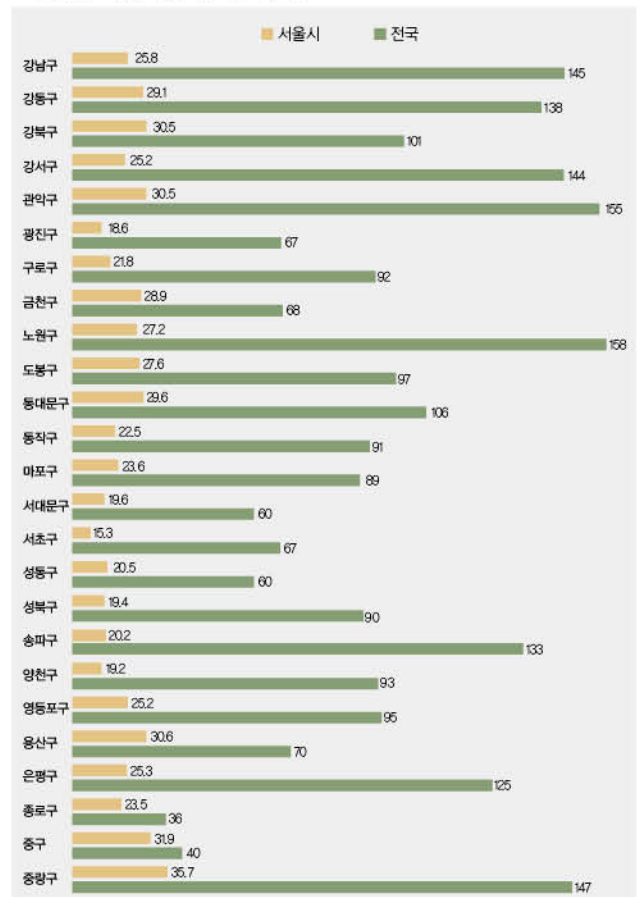
2. 서울시

8)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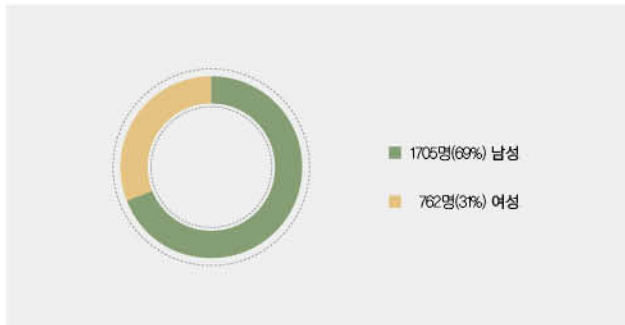
2014년 서울시 내 25개구 자살사망자수는 노원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관악구(155명), 중랑구(147명), 강남구(145명)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 내 25개구 자살사망률은 중랑구가 35.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중구(31.9명), 용산구(30.6명), 강북구(30.5명)와 관악구(30.5명)로 나타났다.

★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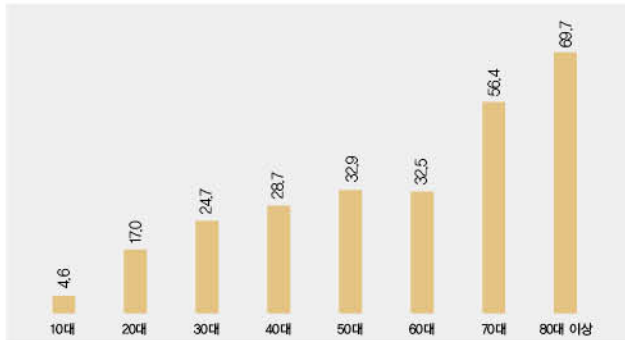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9)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2.2배 높았다. 이는 2013년(2.2배)의 비율과 매우 유사하다.

★ 연령대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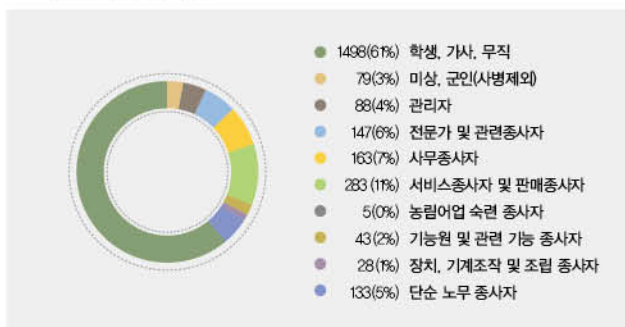


10) 연령대별 자살률

서울시의 연령대별 자살사망률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대의 경우 50대에 비해 자살률이 미미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연령대별 자살률은 10대(4.7명→4.6명), 20대(19.5명→17.0명), 50대(34.6명→32.9명), 60대(34.2명→32.5명), 70대(58.6명→56.4명), 80대 이상(85.5명→69.7)을 제외하고 30대(24.6명→24.7명), 40대(28.4명→28.7명)에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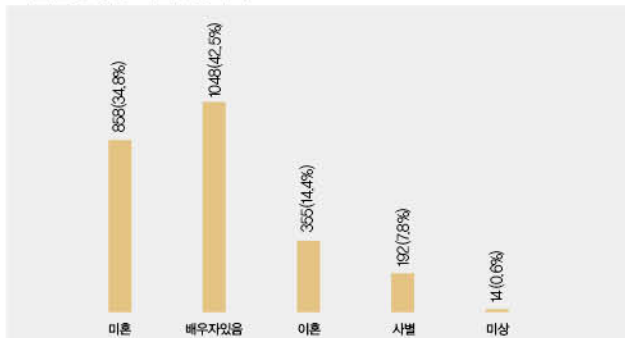
★ 직업별 자살사망자 수



11)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직업에 따른 자살사망자수는 가사·학생·무직이 전체의 60.7%(1,498명)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11.5%(283명), 사무종사자가 6.6%(163명)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6.0%(147명)이었다.

★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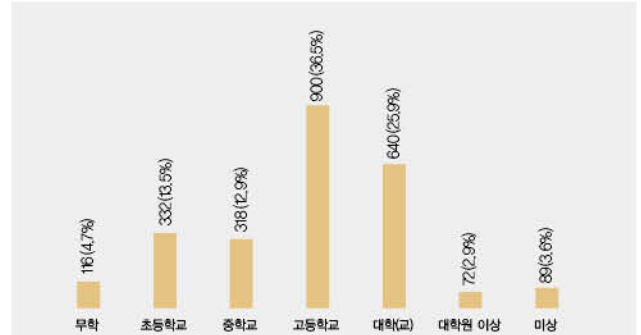
12)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048명(42.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인 888명(34.8%), 이혼이 355명(14.4%), 사별이 192(7.8%)명으로 나타났다.

13)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900명(36.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40명(25.9%), 초등학교 졸업이 332명(13.5%), 중학교 졸업이 318명(12.9%), 무학이 116명(4.7%), 대학원 이상이 72명(2.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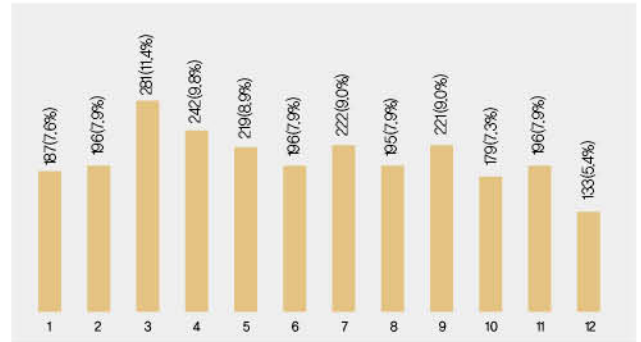
★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 수



14) 월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월별 자살사망자수는 3월이 281명(11.4%)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서로는 4월이 242명(9.8%), 7월이 222명(9.0%), 9월이 221명(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자살사망자수는 1,321명(53.5%(2013년 52.6%)), 하반기 자살사망자수는 1,146명(46.5%(2013년 47.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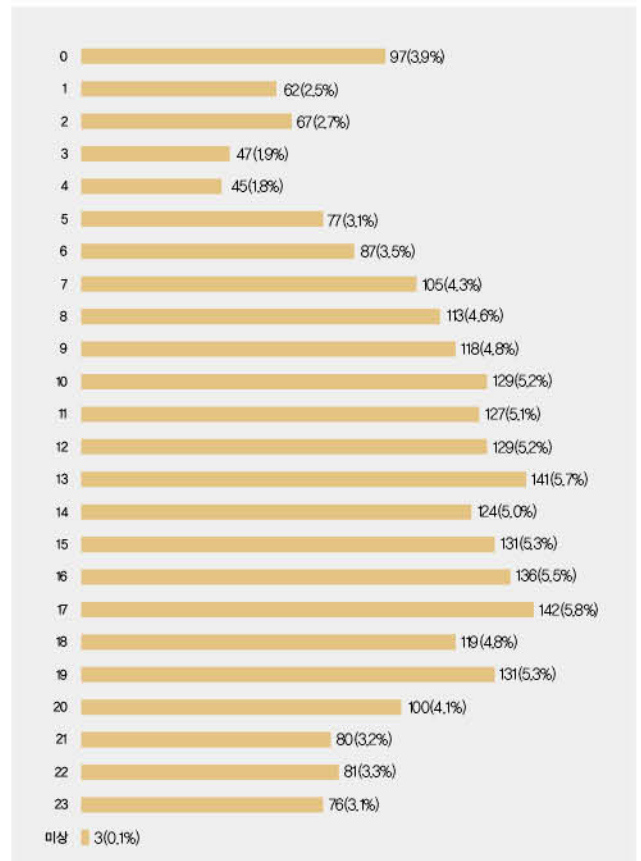
★ 월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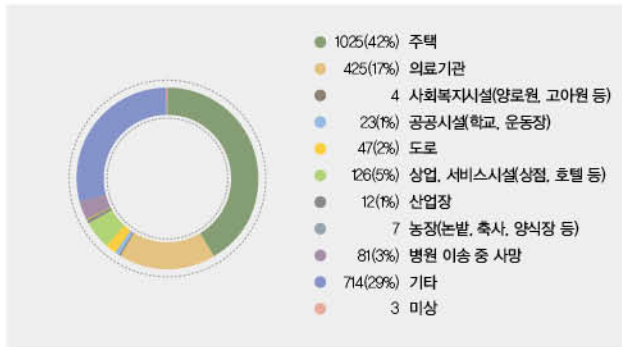
15) 시간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는 17시가 142명(5.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서로는 13시가 141명(5.7%), 16시가 136명(5.5%), 15시가 131명(5.3%)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04시가 45명(1.8%)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순서로는 03시가 47명(1.9%), 01시가 62명(2.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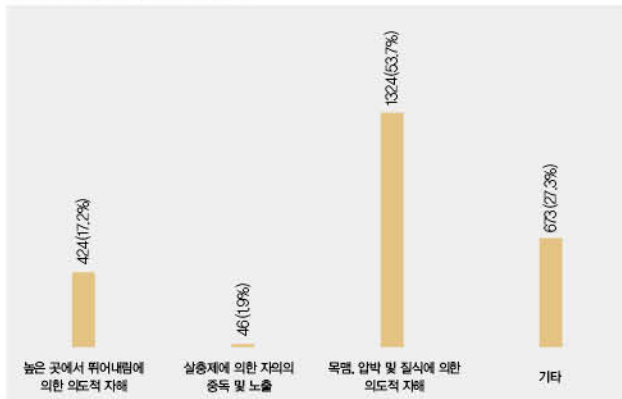
★ 시간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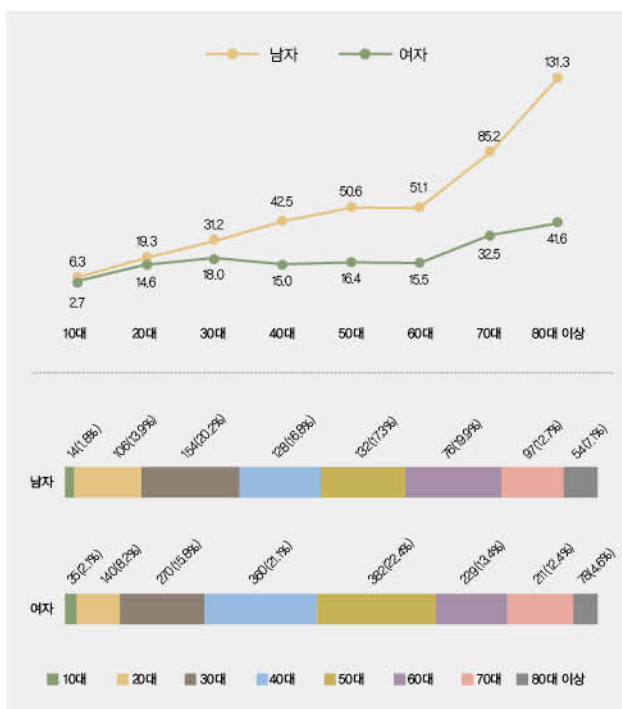
★ 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 성·연령대 비교



16)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의 사망 당시 장소는 주택 內가 1,025명(41.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의료기관이 425명(17.2%),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이 126명(5.1%)으로 나타났다.

17)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는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1,324명으로 전체 자살사망자수의 약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순서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424명(17.2%),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이 46명(1.9%)으로 나타났다.

18) 성·연령대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자살사망자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모두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30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40대에서 60대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70대부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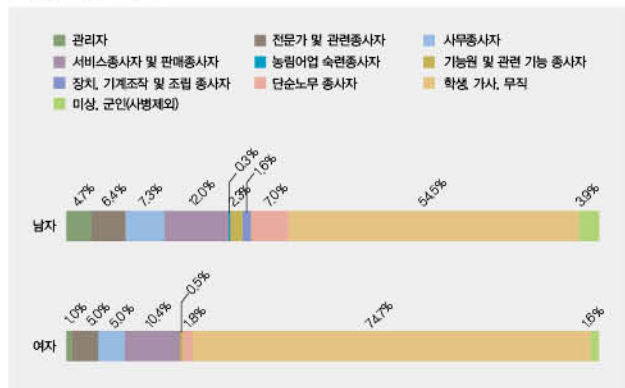
연령대별 자살사망자 비율에 있어서는 여자는 30대가 20.2%(15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순서로는 50대가 17.3%(132명), 40대가 16.8%(128명) 등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50대가 22.4%(3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40대가 21.1%(360명), 20대가 15.8%(270명) 등으로 나타났다.

* 여자 미상 1명

19) 성·직업 비교

성별에 따른 직업별 자살사망자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가사·학생·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비율의 수준은 남자가 54.5%, 여자가 74.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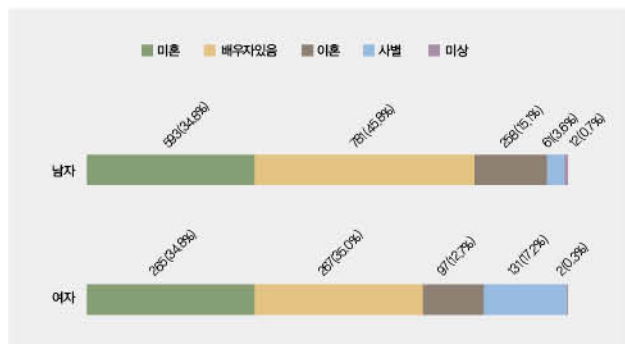
★ 성·직업 비교



20) 성·혼인상태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자살사망비율에 있어서는 남자는 배우자 있음(45.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순서로는 미혼(34.8%), 이혼(15.1%), 사별(3.6%)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는 배우자 있음(35.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순서로는 미혼(34.8%), 사별(17.2%), 이혼(12.7%)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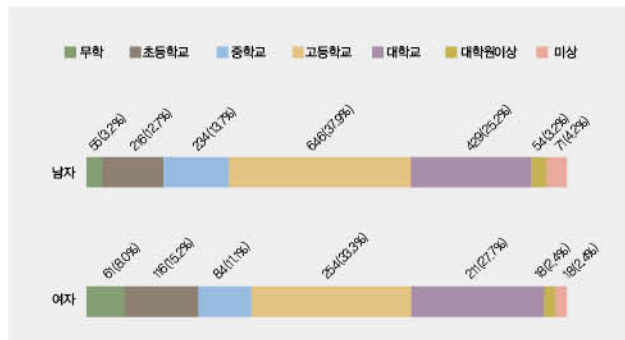
★ 성·혼인 상태 비교



21) 성·교육정도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교육정도 별 사망에 있어서는 남자는 고등학교(37.9%), 대학교(25.2%), 중학교(13.7%), 초등학교(12.7%)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는 고등학교(33.3%), 대학교(27.7%), 초등학교(15.2%), 중학교(1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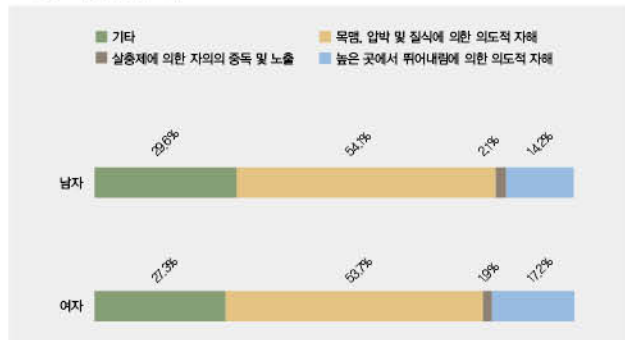
★ 성·교육 정도 비교



22) 성·사망원인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별 자살사망비율에 있어서는 남자는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54.1%),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29.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는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53.7%),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27.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성·사망원인 비교



23) 성 · 사망 장소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성별에 따른 사망 장소비율에 있어서 남자는 주택(39.4%), 의료기관(15.8%)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는 주택(46.5%), 의료기관(20.3%)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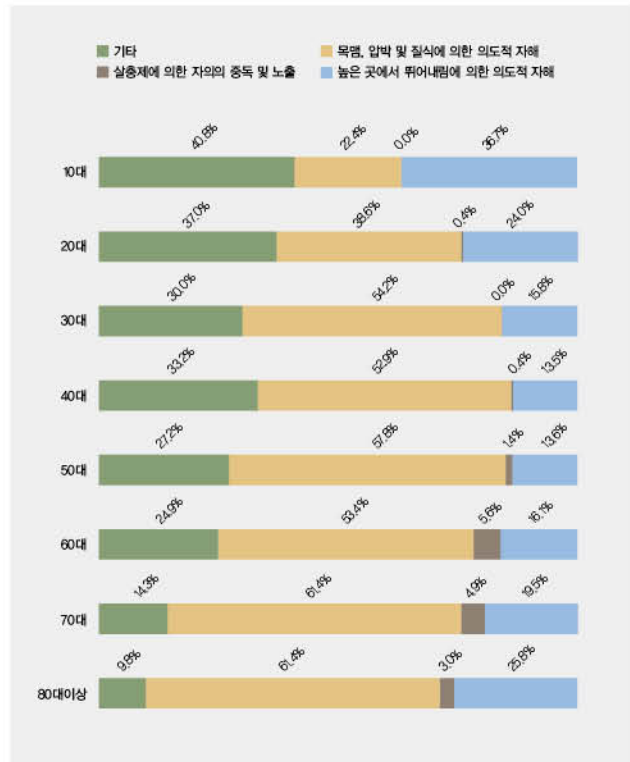
★ 성 · 사망장소 비교



24) 연령대 · 사망원인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연령대에 따른 사망원인의 비교에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70대와 80대 이상이 6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0대의 경우는 높은 곳에서의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40.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연령대 · 사망원인 비교



*투신 중 미상 1명

25) 연령대 · 사망장소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연령대에 따른 사망 장소의 비교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80대 이상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44.9%)와 70대(4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명 미상

★ 연령대 · 사망장소 비교

